

혈소판(血小板)과 간장질환에 대하여

1. 혈소판의 검사

혈소판의 검사라는 것은 이전에는 매우 힘든 검사였으나, 현재는 기계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검사가 가능하고 어디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혈소판의 수라는 것은 간장병의 정도에 따라 변화됩니다. 만성 간염에서도 초기와 진행된 상태와 간경변이 더 진행된 간암 등 그 순서를 따라 혈소판의 수는 평균치로 볼 때 감소되어 갑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보면 간경변이 되어도 전연 감소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극단적으로 감소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혈소판은 간장병 때만 감소 또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혈소판의 수만으로 간장 장애의 정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사람에 있어서도 검사할 때마다 그 수가 변동합니다.

간경변이 되면 혈소판이 감소된다는 것은 벌써 60~70년 전부터 알고 있어 옛날 교과서에도 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장병 때 왜 혈소판이 감소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려면 먼저 간장에 흘러 들어가는, 문맥이란 특별한 혈관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간장에 흘러 들어가는 혈액은 2개의 경로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간에 들어가는 동맥이고, 또 하나는 문맥이란 정맥입니다. 동맥을 통해 뱃속 장기(臟器)에 보내진 혈액은 간에서 나올 때는 정맥이 되고 이것이 모아져서 문맥으로 이름이 달라져 간장에 들어 갑니다. 즉 이 문맥은 장 기타 부위에서 흡수된 것을 간으로 보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맥과 문맥에서 흘러 들어간 혈액은 간장 속에서 가는 혈관을 거쳐 결국 유동(類洞, 모세혈관에 상당)이란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혈액은 다시 모아져서 간정맥으로 그리고 심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나 간장에 장애가 생겨 간장의 섬유가 증가간경변 증세하면 간장 속으로 혈액이 통과하기 어렵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 그 상류(上流)에 혈액이 정체하게 되는데, 그 상류가 되는 비장에도 혈액이 고여 비장이 커지게 됩니다(비장비대). 비장은 면역을 관할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혈액성분을 조정 합니다. 혈액성분 중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이 비장을 통과할 때 선별되어 헌 것을 파괴되어 처리됩니다. 그런데 혈액이 비장 속에서 장기간 체류하면 깨뜨리지 않아도 좋을 것마저 깨뜨리게 되는 데, 그 중에서도 감소가 뚜렷한 것이 혈

소판입니다. 이런 이유로 간장에 장애가 생기면 혈소판이 감소됩니다.

혈소판은 거의가 다 골수(骨髓)에서 만들어 지는데 혈소판을 만들도록 명령을 내리는 물질인 드롬보포에틴은 간장에서 만들어 집니다. 그러므로 간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이 물질의 생산이 감소되고, 그 결과 혈소판도 감소됩니다. 더욱 간장에 병이 있으면 혈소판에 대한 자가항체(自家抗體)가 생겨 혈소판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데도 관여한다고 말합니다.

이상 말한 바와 같이 혈소판의 수는 간장 장애의 하나의 지표는 되겠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 할 수는 없습니다.

2. 혈소판의 수(數)

혈소판의 최저치는 12만이지만 보통 20~30만입니다. 9만일 경우에는 확실히 감소되어 있고, 간장병 때문이라면 간경변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간암이란 그 80~90퍼센트가 간경변이 있는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간암이 발생되기 쉬운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소판이 9만이라 해서 간암이 된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5만이나 6만이라 해도 암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 혈소판이 20만 있어도 암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혈소판 수가 몇 개니까 암이 나타난다라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혈소판이란 것은 간장의 기능의 정도, 즉 간경변의 상태를 판단하는 한 지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간경변이 진행되면 간암의 발생률이 높아짐으로 혈소판의 수치는 간접적으로는 간암발생의 기준이 되지만 이것 하나만 잡아내어 간암의 발생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혈소판의 수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만성 간염이 진행된 진행된 상태가 되고 더 이상의 간경변이 되면 정기적으로 간암의 검진을 받는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우리 협회 소식란을 통하여 검사 기준 등을 계속 알리는, 막바지 어려운 지경간이식 등의 수술할 단계에 도달함에 이르기 전에 검사결과에 나타난 검사항목 중 이상이 있는 항목 보안을 사전에, 약과 식이요법 등 다각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입니다.